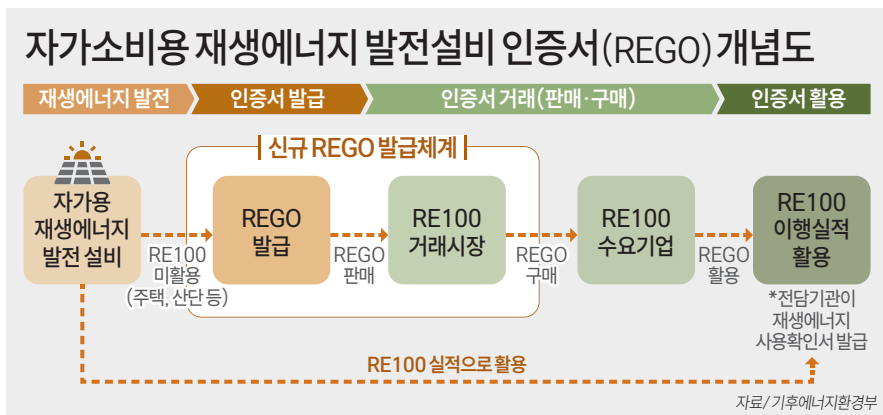


집집마다 ‘태양광 재테크’… 자가소비 인증서 대기업에 판다

내달 REGO 거래 시범사업 착수
1MWh당 1개 발급해 시장에 유통
전기료 절감 넘어 추가 수익 기대
경기 주택 370가구 첫 참여 대상
지자체가 정산 맡아 주민에 배분
2027년 본사업 전환 RE100 지원

앞으로 일반 가정의 주택이나 산업단지 공장에 설치된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로 생산한 전기를 대기업 등에 팔아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동안 단순 전기요금 절감에 그쳤던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를 자산화해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국민들의 ‘에너지 테크’는 물론 국내 기업들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8월부터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 Renewable Energy Guarantees



of Origin)의 발급·거래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요금 아끼고, 인증서 팔아 수익 내고… ‘일석이조’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란 기업 또는 개인이 주택용 또는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설비 등을 활용해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생산한 전력의 100%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졌음을 보증하는 인증서다.

기존에는 개인이 소유한 자가용 태양광의 경우 전기를 직접 쓰고 요금을 아끼는 데만 쓰였을 뿐, 남거나 자체 소비한 전력의 재생에너지 가치를 타인에게 판매해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가 없었다. 그러나 REGO 제도가 도입되면 발전량 1MWh당 1REGO를 발급받아 RE100 이행이 시급한 기업들에게 판매해 부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된다.

국내 RE100 참여기업이 2021년 83개에

서 2025년 586개로 급증하며 재생에너지 수요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이번 제도는 기업들에도 매력적인 신규 이행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미국(SREC), 일본(J-Credit) 등 해외에서는 활성화된 제도로, 정부는 지난해 8월 글로벌 RE100 주관기관인 CDP로부터 국내 REGO를 RE100 이행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마쳤다.

◆경기도 주택 태양광 370곳 첫 시범 타킷… 지자체가 수익 배분 중개

본격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는 지방정부, 유관기관과 손을 잡았다. 기후부는 경기도, 한국에너지공단과 22일 오전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주택태양광(3kW 규모) 보급 지원사업’ 설치 가구 중 370개소를 대상으로 REGO 발급·거래를 우선 지원한다. 개인이 직접 세금 처리나 거래를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경기도 등 지자체가

중개사업자로 참여해 수익을 정산한 후 지역화폐 등으로 주민에게 배분하는 ‘중개형 모델’이 실험대에 오른다.

기후부는 오는 8월~11월까지 약 4개월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를 보완한 뒤, 오는 2027년부터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거래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공모절차는 7월 20일부터 8월 4일까지 진행된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 및 거래제도의 도입을 통해 관련 설비의 보급을 확대하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참여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거래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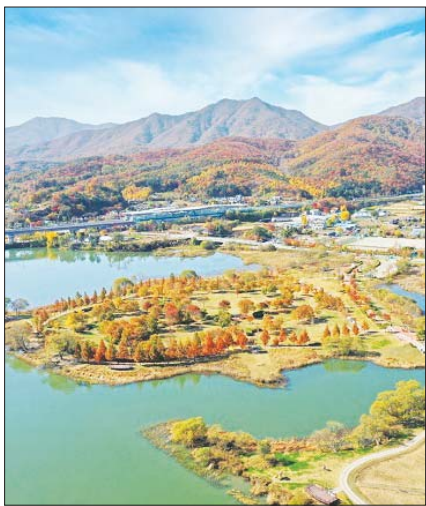
상수원 규제 풀고 ‘햇빛소득’ 확대… 주민 발전수익 공유

4대 수계법 개정안 시행
육상태양광 부지 제한 해소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환경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상수원 상류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 기회가 넓어진다.

규제 지역 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주민들이 직접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이른바 ‘햇빛소득’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상수원 보전을 위해 규제받는 지역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 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4개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전경. /남양주시

그동안 정부는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팔당호 및 대형호 특별대책지역) 지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을 위해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한

복지증진 중심의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은 기존 주민지원사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마을주민 등이 원하는 경우 마을회관이나 공공시설, 개인 주택 등을 활용해 태양광·히트펌프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시행령에 명시했다.

특히 주민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재생에너지 사업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 발생한 발전수익금을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했다.

임지 규제도 크게 풀린다. 기존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광 설비를 건축물 옥상이나 일부 공공시설 부지, 주택 대지에만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었고 수면 위 설치에 아예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에 따라 앞으로 보호구역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등이 설치·운영하고 주민 소득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육상태양광의 부지 제한이 사실상 해소된다. 아울러 지방정부나 한국수자원공사 등 수면관리자가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해 직접 설치·운영하고 지역 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라면 수상태양광 설비 설치도 허용된다.

조희송 기후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규모있게 확대해 햇빛소득의 혜택 받기를 원하는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으며, 이로써 지역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새시대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모범사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전, 누진 3단계 진입 전 실시간 알림

여름철 360kWh 도달 시 안내
한전ON·카카오톡으로 즉시 발송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주택용 전기요금의 최고 요금제 구간인 ‘누진 3단계’ 진입 전 미리 실시간으로 안내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여름철 전기요금 폭탄을 예방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한전은 폭염으로 인한 냉방 수요 급증에 대비해 고객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용 누진단계 변경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전기사용량이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단가가 크게 뛰는 누진 3단계 진입 기준(여름철 450kWh)의 80% 수준인 360kWh에 도달했을 때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알람을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여름 이외 계절 기준으로는 400kWh의 80%인 320kWh 도달 시 알람이 발송된다.

알림은 모바일 앱 ‘한전ON’의 푸시 메시지로 전송되며, 앱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전달된다. 특히 알람 메시지를 클릭하면 한전의 에너지 절약 플랫폼인 ‘슬기로운 전기생활’의 ‘요금 진단하기’ 화면으로 바로 연결된다. 이를 통해 고객은 현재 실시간 사용량뿐만 아니라 현재 누진 단계, 그리고 이번 달 예상 요금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한전은 우선 ‘한전ON’ 가입자 약 2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이번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뒤, 올 12월에는 원격검침인프라(AMI)가 구축된 주택용 전 고객(약 1100만 가구)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실시간 전력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은 전기요금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적으로도 여름철 전력 피크를 완화해 전력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팬티형 생리대 흡수력·착용감 제각각

전 제품 안전성 적합 가격 최대 2배

자는 동안 사용하기 편리해 최근 소비자의 높은 관심을 받는 ‘일회용 팬티형 생리대’가 제품별로 흡수성과 착용감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당 가격은 제품 간 최대 2배까지 벌어졌다.

한국소비자원은 21일 소비자 사용 경험에 많은 일회용 팬티형 생리대 7종(7개 브랜드)을 대상으로 흡수성능, 소비자 실사용 평가에 따른 착용감, 기본 품질, 안전성, 개당 가격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시험 결과에 따르면 생리대에 흡수된 생리혈이 다시 피부에 묻어나오는 정도인 ‘역류량’은 유한킴벌리의 ‘좋은느낌(무표백100% 유기농순면커버 입는 오버나이트)’이 1·2차 시험 모두에서 가장 적어 타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생리혈을 완전히 흡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 ‘흡수시간’은 흡수량이 5mL 일 때 내추럴코리아의 ‘내추럴코튼(시그니처오

가닉 입는 오버나이트)’이 3.6초로 가장 빨랐던 반면, 라엘코리아의 ‘라엘(내추럴순면입는오버나이트)’은 1·2차 시험 모두에서 20초 이상 걸려 상대적으로 흡수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20~40대 여성 소비자 110명이 참여한 실사용 평가에서는 더퍼스트터치의 ‘리버티(센시티브 입는 오버나이트)’와 ‘라엘’ 제품이 치수 맞음새 항목에서 각각 3.8점, 3.7점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촉감과 맞음새를 포함한 전체적인 착용감 만족도는 ‘라엘’ 제품이 3.8점으로 가장 높았다.

위생 및 안전성 측면에서는 전 제품이 합격점을 받았다. 질량, 강도 등 기본 품질 및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으며, 발암성과 생식독성 등 위해도가 높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10종도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제품들이 확인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국수산자원공단

AI·AX 수산교육 본격화

현장실습·취업 연계 강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한국농수산대 및 4개 고교와 공동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수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계 고등학교와 대학교육의 AI·AX(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최근 한국농수산대, 완도수산고, 한국해양마이스터고, 신안해양고 학교, 여수해양고등학교와 함께 이과·관련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은 ▲AI 기반 스마트수산업 공동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AI·AX 기반 수산교육 전환을 위한 학습 모델 공동 연구 △현장실습·산학연계 및 진학·취업 연계 ▲스마트수산업 관련 연수·캠프·공동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정책 및 산업계와 연계한 공동 사업 발굴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한국폴리텍대학

무전원 배터리 화재진압

광주캠퍼스 대상 수상

한국폴리텍대학이 지난 주말 서울교대에서 제15회 세계발명창의올림픽(WICO)을 개최했다. 이번 WICO에는 약 20개국 1000여명의 학생, 기업인, 발명가가 참가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신기술 등을 선보였다. 올해 대회는 폴리텍대와 한국대학지식재산협회, 세계지식재산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대상’은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의 발명품 ‘열 형상기억합금을 활용한 무전원 배터리 화재 진압 시스템’이 받았다. 광주캠퍼스는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가 났을 때 전원이 차단되면 기존 소화 시스템이 무력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외부 전원 없이 고열에 반응하는 형상기억합금이 불이 났을 때 자동으로 작동해 배터리를 소화수에 침수시키는 완전 무전원 방식의 자가 작동형 시스템을 고안했다.

/세종=김연세 기자